

# 종교개혁기 루터파의 성직자 교육\*

박 준 철\*\*

- I. 머리말
- II. 성직자 교육의 개선 필요성 대두
- III.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
- IV. 서품심사와 교구시찰
- V. 맺음말

## I. 머리말

예수를 추종하는 소수의 무리로 출발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곳곳에 확산되면서 나타난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성직자 계급의 등장이다. 신도수의 급증으로 교회의 조직화가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교회의 지도자로서 교리를 가르치고 의식을 관장하는 계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이들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신분상 평신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성직자 계급으로 발전하였다. 초대교회 이래로 성직자들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성대 사학과 교수.

은 그들의 막중한 기능과 불가침의 권한으로 기독교 메카니즘의 핵심부를 구성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역할과 활동은 교회의 명암과 직결되었다.

서양의 역사가 예증하듯이 성직자의 수준향상은 곧 교회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성직자의 무능과 타락은 항상 교회의 퇴보를 재촉하였다. 교회가 사회에 지닌 호소력은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에 비례하였고 기성교회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외면은 무엇보다도 성직자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한 마디로 교회가 경험한 부침(浮沈)과 영욕(榮辱)의 도정은 성직자들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직자들의 절대적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성직자 교육이 시대와 종파를 막론하고 교회의 우선적 관심사이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기 루터파가 시행한 성직자 교육의 성격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요람인 루터파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을 부정하고 거기에 믿음지상주의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교회개혁을 주창하였다. 교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성직자 교육의 개선이었다. 왜냐하면 교회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성직자들의 교육수준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었고 또한 새로운 구원론에서 파생한 새로운 교리와 제도가 성직자의 기능과 더불어 성직자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루터파의 지도자들은 다채로운 성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정·실시하였고 이는 결국 유능한 성직자들을 배출하여 독일 종교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건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직자 교육에 대한 고찰은 루터파의 실제적 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 Peter Dykema and Heiko Oberman (ed.), *Anticlericalism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Leiden, 1993)은 중세말과 근대초 유럽에 나타난 반성직주의의 다양한 경향을 보여 준다.

## II. 성직자 교육의 개선 필요성 대두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 논제」로 집화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1520년대 중반까지 주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질타하고 척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루터파 지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수태하고 있었다. 「95개 논제」뿐만 아니라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하이델베르크 논쟁(1518)과 라이프치히 논쟁(1519) 그리고 1520년대 초반에 저술된 종교개혁가들의 수 많은 작품들은 기존 교회가 견실하게 유지해 온 교리와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나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한편 1525년 비텐베르크에서 미사의 집전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을 필두로 가톨릭 의식을 폐지하는 물결이 대대적으로 번져 갔지만 프로테스탄트 고유의 예배의식은 아직 그 윤곽을 갖추지 못하였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전제하에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은 이러한 공격일변도의 개혁운동에 내재한 약점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존 교회에 불만이 누적된 많은 대중들이 루터파에 갈채를 보냈고 또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상당수의 군주들이 반로마운동에 적극 동조하였다. 간과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의 초기 기류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미 1520년대 초기부터 그 동안 침잠해 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그 일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15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한때 루터파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는 비텐베르크에서 폭력을 동반한 급진적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sup>2)</sup> '츠비кау(Zwickau)의 예언자들'은 모든 종교의식 뿐만 아니라 성경마저도 부인하는 신비적 성령주의(mystical Spiritualism)를 표방하였으며, 켈티스(Conrad Celtis)에 의해 시작된 재세례파는 성인세례를 주창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루터파의 지도부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급진세력의 출현은 세부적 교리와 의식에 있어서 정체성을 결여한 초기 개혁운동의

---

2) Lewis W. Spitz, *The Protestant Reformation 1517-1559* (New York, 1985), p. 97.

부작용이었다. 급진파들은 가톨릭 전통을 규탄하는 당시의 시류에 편승하였지만 루터파로부터 향후의 구체적 노선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루터파가 인정할 수 없는 독자적 행보를 택한 것이다. 독일의 중남부를 유혈과 파괴의 심연에 빠뜨린 1525년의 농민전쟁 역시 영적 자유와 영적 평등을 지향한 루터파의 개혁운동에 고무되었지만 그 목표는 루터파 지도부를 전율케 한 기존 사회질서의 전복과 재편이었다. 한편 그 동안 루터파에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인문주의자들은 급진화된 개혁운동이 낳은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궁극적 책임을 루터파에 전가하였고 나아가 종전의 우호적 입장을 철회하였다. 그들에게 루터의 개혁운동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였다. 요컨대, 가톨릭 교회의 공략에 몰두하면서 한 동안 승승장구했던 초기 개혁운동은 건설적 대안의 부재로 인하여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예사롭지 못한 사태에 직면한 루터파의 지도부는 곧 문제의 본질을 자각하였고 이에 따라 개혁운동은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제 그들의 주목을 끈 현안은 가톨릭 전통의 타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대중화를 통해 교회개혁을 사회저변에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중대 과업의 완수를 위해서 먼저 각 지역 교구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되었고 마침내 1527년 여름 루터,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 슈팔라틴(Georg Spalatin)을 포함한 루터파의 수뇌부는 에른스트 작센(Ernestinische Sachsen)<sup>3)</sup>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의 교구시찰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하였다. 1529년 출판된 「小 교리문답서(Der kleine Catechismus)」의 서문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최근에 내가 교구시찰에서 마주친 통탄할 만한 상황 때문에 나는 이 짧고 간단한 교리문답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

3) 작센은 1485년부터 선제후(選帝侯, Kurfürst)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의 두 아들 에른스트(Ernst)와 알베르트(Albert)가 분할 통치하였다. 양분된 두 지역은 이 때부터 이들의 이름을 딴 에른스트 작센과 알베르트 작센으로 불리웠다. 선제후의 직위는 에른스트가 계승하였기 때문에 에른스트 작센은 선제후령 작센으로, 알베르트 작센은 공작령 작센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한편 에른스트의 아들 현명공 프리드리히(Friedrich der Weise)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설립자이자 루터의 후견인이었고 그가 통치한 에른스트 작센은 루터파의 핵심지역이었다.

나 비참한 사태를 제가 보았습니까! 사람들, 특히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무능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부적격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모르고 있고 마치 돼지와 미친 야수처럼 살고 있습니다.<sup>4)</sup>

“통탄할 만한 상황”은 루터 혼자만의 진단이 아니었다. 1528년 교구시찰 중 멜란히톤은 당시의 상황을 유사한 어조로 묘사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엄청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방치하여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불행한 사태를 목격하면서 나의 가슴은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한 지역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종종 구석으로 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달래곤 한다.<sup>5)</sup>

한 마디로 종교개혁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의미 없는 투쟁이었다. 일반 교구민들은 루터파의 교리는 차치하고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에도 미숙하였고 목회자들 역시 무지와 교리적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이지만 엄연한 현실은 십여년 간의 개혁운동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152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일련의 급진화 현상은 루터파 지도부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연이어 시행된 교구시찰은 그들의 각성을 재차 요구하면서 개혁방향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교육개선 없이 교회개혁의 성공적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종교개혁은 1530년을 전후하여 교육에 주력하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sup>6)</sup> 루

4) Martin Luther, “Small Catechism,”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ed. and trans. by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1959), p. 181.

5) Hans Engelland, “Melanchthon’s Bedeutung für Schule und Universität,” *Luther, Mitteilungen der Luthergesellschaft*, 31 (1960), p. 24에서 재인용.

6) James M.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Phase Two of the Reformation,” *Die dänische Reformation vor ihrem internationalen Hintergrund*, ed. by Leif Grane and Kai Horby (Göttingen, 1990), pp. 151-154.

터파 지도부가 펼친 다양한 교육정책 가운데 그들이 가장 치중한 분야는 성직자 교육의 개선이었다. 주지하듯이, 종교개혁의 도래를 앞당긴 것은 중세말 독일사회에 팽배한 반성직주의적 경향이었고 당시 성직자들의 열악한 교육수준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sup>7)</sup> 이를 의히 알고 있던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작금의 상황을 방관하고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은 곧 개혁의 실패를 의미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리를 대중들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보다 본질적 개혁의 열쇠는 바로 일선의 목회자들이 쥐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그들 앞에 새삼스레 부각되었던 것이다. “엄청난 무지와 어리석음”의 척결을 위한 유능한 성직자의 양성은 이제 교회개혁의 존폐를 가름하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되었다. 루터는 1530년의 한 설교에서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전문적 신학자와 더불어 “어린이들과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반 목회자”<sup>8)</sup>를 배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는 당시 루터파 지도부의 심경을 명료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하고 성실한 목회자와 설교가 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보물은 이 세상에 없다”<sup>9)</sup>는 루터의 피력 역시 루터파 교육정책의 지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케 한다. 외화내빈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개혁운동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 II.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

성직자 교육을 위해 루터파가 채택한 여러 정책들 가운데 가장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된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은 교육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교육의 질적 개선도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대두된 근본적 원인은 프로테스탄트 3대 교의 중 하나인 성경지상주의에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중세인들의 삶을 지배해 온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규범을

7) 박준철, 「중세말 독일의 反聖職主義와 대학교육」, 『역사학보』, 제149집 (1996), pp. 139-147.

8) “A Sermon on Keeping Children in School,” *Luther's Works*, 이하 LW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46, p. 231.

9) *Ibid.*, p. 223.

총체적으로 부정한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새로운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았다. 교회법, 교황의 교령, 종교회의의 결정, 스콜라 신학자들의 교리적 해석 등이 향유했던 권위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오직 성경만이 교리와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인정되었다. 1520년 취리히의 시의회가 성경의 내용에서 일탈된 설교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은 이러한 성경지상주의의 발현이었고 또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 은거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성경 대중화의 일환이었다.

성경지상주의가 성직자의 역할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중세의 구원론은 세례와 고해성사 등의 의식준수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재속(在俗) 성직자의 본연적 기능은 ‘司祭(priest)’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종교의식, 특히 성례(sacrament)의 관장과 집전이었다. 중세 교회가 사제와 설교가의 역할을 현격히 구분하고 또한 후자보다 전자에 월등한 위상을 부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의식준수가 구원과 무관하고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안내자라는 교의가 정립됨에 따라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설교와 성경교육이 일선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였다. 루터는 「목회에 관하여」(1523)에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기능인들만 서품”하는 전통 교회의 관례를 통렬히 비난하고 나아가 성직자의 다양한 임무 가운데 “가장 으뜸가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새로운 목회관을 제시하였다.<sup>10)</sup>

그러나 중세말 독일 대학의 교과과정은 이와같은 새로운 목회자상을 구현하려는 루터파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개혁가들의 염원이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되돌아 오는 도중 루터는 에르푸르트(Erfurt)에 있는 그의 동료 트루트페터(Joducus Trutfetter)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나는 현재 가르쳐 지고 있는 교회법, 교령, 스콜라 신학, 철학, 논리학이 완전히 철폐되고 새로운 과목들이 제정되지 않는 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sup>11)</sup>라면서 교과과정 개혁의

10) “Concerning the Ministry,” *Ibid.*, 40, p. 12, 21.

11) D. Martin Luthers Werke. Briefwechsel, 이하 WA Br, 1, p. 170, no. 74: “ego simpliciter credo, quod impossibile sit ecclesiam reformari, nisi funditus canones, decretales, scholastica theologia, philosophia, logica, ut nunc habentur, eradicentur et alia studia instituantur.”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1518년 8월 비텐베르크 대학 그리스어 담당교수로 부임한 멜란히톤 역시 그의 취임연설에서 종래의 교과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날날이 노정시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sup>12)</sup> 21세의 나이와 일천한 경력을 갖고 있던 멜란히톤은 이 연설을 통하여 그에게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루터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고 향후 루터와 더불어 독일 종교개혁을 선도하게 된다.

루터파가 추진한 교과과정 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중세의 학문세계를 압도했던 논리학과 스콜라 신학을 배제하는 한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총아인 인문학(studia humanitatis)과 성경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입각한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는 순수진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지주의(主知主義)적 경향으로서 중세 독일대학의 교양학부와 상위학부(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성을 구축하였다. 교양학부의 필수과목은 논리학 과목으로 점철되었으며 신학부에서는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의 『전거집』을 위시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주석서가 성경을 능가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sup>13)</sup> 요컨대 현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의 육성을 지향하는 인문학은 현저히 낙후되었고 이러한 교과과정은 목회자 보다는 전문적 신학자의 양성에 적합한 것이었다. 종교개혁기 독일 대학개혁을 주도한 멜란히톤은 스콜라주의에 토대한 대학교육의 결과로 “최근의 교회는 그리스도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다”<sup>14)</sup>라고 개탄하였고 루터는 “신학자들은 성경은 제쳐 두고 『전거집』만을 읽는다”<sup>15)</sup>라며 기존 교과과정의 폐해를 질타하였다.

트루트페터에게 보낸 서한에서 루터가 시사한 “새로운 과목들”은 다름 아닌 인문학과 성경 자체에 국한된 신학 과목들이었다. 루터파의 지도부

12) “De corrigendis adolescentiae studiis,” *Corpus Reformatorum. Philippi Melancthonis Opera*, ed. by Carlos G. Bretschneider and Henricus E. Bindseil, 이하 CR (Halle, 1834-1860), 11, p. 15-25.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Joon-Chul Park, “Philip Melancthon’s Reform of German Universiti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naissance Humanism and the Reformation,” Ph. D. Thesis (Ohio State Univ., 1995), pp. 83-86 참조.

13) 박준철, 「중세말 독일의 反聖職主義와 대학교육」, pp. 147-165.

14) “Loci Communes Theologici,” trans. by Lowell J. Satre, in *Melancthon and Bucer*, ed. by Wilhelm Pauck (Philadelphia, 1969), p. 23.

15) “An Appeal to the Ruling Class of German Nationality as to the Amelioration of the State of Christendom,”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by John Dillenberger (New York, 1961), p. 473.

는 대부분 저급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던 교구민들에게 효율적인 설교와 성경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변적 논리학의 학습 보다 오히려 설득력과 호소력을 증진시키는 수사학의 연마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또한 정확한 성경지식을 습득하는 칙경은 스콜라 신학자들의 난해한 주석서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와 어학(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의 집중적 훈련이라고 확신하였다.<sup>16)</sup> 이러한 인식과 확신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결국 루터파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은 전례없는 대규모의 개혁을 경험하게 된다.

루터파 대학개혁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특징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루터주의의 수용이 곧 바로 교과과정의 개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의 메카인 에른스트 작센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경우 비록 본격적인 개혁은 성직자 교육 개선의 필요성이 보다 확고히 부각된 1520년대 후반 이후에 단행되었지만(1533, 1536, 1546) 종교개혁이 발발한 이듬해인 1518년 이미 교양학부 커리큘럼 개혁에 착수하였다.<sup>17)</sup> 한편 1534년 루터파 군주인 헤센의 필립(Landgraf Philipp von Hessen)의 도움으로 스와비아 연맹(Swabian League)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한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의 공작 울리히(Ulrich)는 즉각 루터주의를 채택하였고 1536년 11월 3일 새로운 정관에 의해 튀빙겐 대학의 교과과정을 일신하였다.<sup>18)</sup> 또한 1539년 4월 루터파의 일원이 된 알베르트 작센에서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개혁안이 5월 말에 작성되었고 그 후 수 차례의 수정을 거친 개혁안은 1543년 멜란히톤의 제자인 카메라리우스(Joachim Camerarius)에 의해 집행되었다.<sup>19)</sup> 1556년 4월 뒤늦게 루터파의 대열에 합류한 팔츠(Pfalz)의 선제후 하인리히(Otto Heinrich) 역시 2년 후 멜란히톤과 미킬루스(Micyllus)가 주도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개혁을 재가하였다.<sup>20)</sup> 이상의 사실은 대학개혁이 곧 교회개혁의 초석이라는 루터파의 인식과 그들이 성직자 교육의 질적 개선에 쏟은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6) 구체적 내용을 위해서는,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서양사론』 제52호 (1997), pp. 1-31 참조.

17) Walter Friedensburg, *Geschichte der Universität Wittenberg* (Halle, 1917), pp. 107- 115.

18) Richard L. Harrison Jr., "Melancthon's Role in the Reformation of the University of Tübingen," *Church History*, 47 (1978), pp. 270-278.

19) Karl Hartfelder, *Philip Melancthon als Praeceptor Germaniae* (Berlin, 1889), pp. 519-520.

20) Eduard Winkelmann, (ed.), *Urkundenbuch der Universität Heidelberg* (Heidelberg, 1886), II, p. 115, no. 1020.

루터파 지역 곳곳에서 단행된 대학개혁은 예견된 결과를 가져 왔다. 우선 그 동안 논리학과 자연과학의 위세에 가려 홀대되어 온 어학과 수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교양학부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도약하였다. 1546년 제정된 비텐베르크 대학 정관에 따르면 9명의 교양학부 교수 중 6명은 각각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사학, 시, 윤리학을 담당하였고,<sup>21)</sup> 튀빙겐 대학의 교양학부는 1536년 개혁에 따라 10명의 교수 가운데 5명을 인문학에 배정하였다.<sup>22)</sup> 한편 1558년 라이프치히 교양학부 학생들이 학사학위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총 12과목 중 8과목은 인문학 과목들이었으며,<sup>23)</sup> 같은 해 하이델베르크 교양학부 정관은 전임교수('publici professores') 5명 가운데 3명은 인문학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sup>24)</sup>

신학부 역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 왔다. 무엇보다도 중세 대학의 신학부에서 무려 약 400년간 최고의 과목으로 군림해 온 『전거집』강의는 모든 루터파 대학에서 철폐된 반면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성경 위주로 전환되었다. 1536년 비텐베르크 신학부의 정관은 루터파가 가장 신뢰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다루는 단 한 강좌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성경 그 자체에 국한시켰다.<sup>25)</sup> 1536년 튀빙겐 신학부의 정관은 그 교과과정의 구체적 명시가 누락되었지만 1535년 제정된 공작슈에 의거하여 추정해보면 3명의 교수에 할당된 과목들은 전적으로 성경만을 취급하였다.<sup>26)</sup> 한편 1543년 라이프치히 신학부 정관은 1533년 비텐베르크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였고<sup>27)</sup> 1558년 하이델베르크 신학부의 경우도 그 동안 교양학부 소

21) Walter Friedensburg, (ed.), *Urkundenbuch der Universität Wittenberg*, 이하 *UBUW* (Magdeburg, 1926), I, pp. 267-268.

22) "Herzog Ulrichs zweite Ordnung vom 3. November 1536," *Urkunden zur Geschichte der Universität Tübingen aus den Jahren 1476-1550*, 이하 *UGUT*, ed. by Rudolph von Roth (Tübingen, 1877), pp. 187-190.

23) 유감스럽게도 1543년의 정관은 교양학부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558년의 정관에 따랐다. Friedrich Zarncke, (ed.), *Die Statutenbücher der Universität Leipzig aus den ersten 150 Jahren ihres Bestehens*, 이하 *SBUL* (Leipzig, 1891), pp. 533-534.

24) "Die Reformation der Kurfürsten Otto Heinrich vom 19. December 1558," *Statuten und Reformatio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von 16. bis 18. Jahrhundert*, ed. by August Thorbecke, 이하 *SRUH* (Leipzig, 1891), p. 96.

25) *UBUW*, I, pp. 174-175.

26) *UGUT*, pp. 183-184, 187.

27) 일부 문단의 경우 단어 하나 틀림없이 완전히 동일하다. (예를 들면, *UBUW*, I, p. 155의 두 번째 문단과 *SBUL*, p. 569의 4번째 문단) 이 점은 라이프치히의 교과과정 개혁을 실

속이었던 히브리어 강좌가 신설된 것 외에는 아주 유사한 교과과정이 채택되었다.<sup>28)</sup>

위에서 언급한 대로 루터파 대학개혁의 근본적 동기는 보다 바람직한 성직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지상주의와 교구시찰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지역 교구의 실상은 성경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대중화와 정착화를 양보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부각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과과정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어학과 성경학이 새로운 교리의 습득을 위한 지름길이었다면 수사학은 습득된 교리를 교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불가결의 도구였다. 이 점을 간파한 루터파의 지도부는 대학개혁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인문학은 독일 대학교육의 근간으로 성장한 반면 논리학과 스콜라 신학은 예전의 화려한 명성을 상실하였다.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갈망한 인문주의의 확대는 독일의 경우 종교개혁에 큰 덕을 입었고 종교개혁 역시 인문주의에 적지 않은 빛을 진 셈이다.

#### IV. 서품심사와 교구시찰

유능한 성직자 양성을 위해 루터파가 구상한 또 하나의 정책은 서품심사의 도입과 강화였다. 주지하듯이, 중세 교회는 사제의 도움없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사제의 서품을 7성례에 포함시켰다. 의식중심의 가톨릭 전통을 배격하고 또한 만인사제주의(萬人司祭主義)를 표방한 루터파는 서품식 자체의 의미는 집요히 부정하였지만 우수한 목회자의 배출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감안할 때 새로이 성직에 입문하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루터파는 1528년 서품심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역시 1520년 대 후반에 실시된 교구시찰의 결과에 크게 자극되었다. 서품심사의 도입을 명문화한 「교구시찰관들을 위한 지침서」(1528)는 “언제나 그렇지만

---

절적으로 주도한 자가 비텐베르크의 멜란히톤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8) SRUH, p. 39, 41.

특히 최근 몇 해의 경험은 선과 악은 성직자들의 능력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sup>29)</sup>면서 그것의 채택이 일차적으로 교구시찰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에른스트 작센에서 처음 실시된 서품심사는 곧 루터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성직자의 수준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루터파가 시행한 서품심사의 세부적 실상을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사료들은 그 윤곽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먼저 「교구시찰관들을 위한 지침서」는 서품심사의 취지와 절차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차후로 한 목회자나 설교가가 사망 또는 다른 이유로 그의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그는 목회자의 職을 받거나 설교가로 받아 들여지기 전에 심사관 앞에 출두해야 한다. 심사관은 그의 생활, 가르침,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지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성직에 앉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막을 수 있다.<sup>30)</sup>

1552년 에른스트 작센에서 시행된 서품심사의 규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직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이 규정은 루터파의 색채를 완연히 반영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아우그스부르크 고백서」와 그리고 특히 슈말칼트(Schmalkald)에서 故 마르틴 루터 박사와 22명의 신학자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 들인 교리 조항들에 의거하여 성스러운 복음을 인간의 가감없이 순수하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고 또한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성례[세례와 성찬]를 집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슈말칼트 조항들에 위배되는 츠빙글리나 재세례파 혹은 다른 종교적 광신자들의 교리들을 신봉하거나 가르쳐서도 안되며 설교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그들의 교리에 맞서 싸워야 한다.<sup>31)</sup>

29) “Instruction for Visitors,” *LW*, 40, p. 314.

30) *Ibid.*, pp. 313-314.

31) Susan Karant-Nunn, *Luther's Pastors: The Reformation in the Ernestine Countryside* (Philadelphia, 1979), p. 58에서 재인용. 멜란히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고백서」는

한편 1558년 비텐베르크에서 실시된 서품심사는 당락의 관건을 루터파 교리의 이해 정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달능력에 두고 있다. 즉, 성직 희망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물론 「루터의 교리문답서」와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등 루터파 교리의 정수(精髓)를 숙지해야 하며 또한 “이를 사람들에게 조리있고 알기 쉽게 (ordentlich vnd verstandlich)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규정은 대학개혁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의도가 서품심사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품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목회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의 충족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부여받고 일선 교구에 파송되었다.<sup>33)</sup> 루터파 지역에서 이 자격증의 소유는 여건이 좋은 임지(任地) 선택과 추후 교권 내의 신분 상승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sup>34)</sup> 교리상의 전문적 식견과 숙지한 교리의 능숙한 전달은 곧 경쟁력있는 목회능력을 의미하였으며 이를 갖춘 성직자들은 제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을 누린 것이다. 서품심사의 도입과 시행이 성직자 교육의 질적 개선에 큰 공헌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품심사는 성직자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손색 없는 기여를 하였다. 비록 대학교육의 이수가 서품의 의무적 조건은 아니었지만 루터파 대학에서 수학하지 않고서 루터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루터파의 지도부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대학 교과과정을 쇄신한 것도 바로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을 성직에 등용하겠다는 복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성직자들의 교육수준을 조사한 연구들은 저학력으로 루터파의 성직자로 서품된다는 것이 실로 지난(至難)했음을 명쾌히 보여 준다. 지역적·시기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

1530년 신성로마 황제 칼(Karl) 5세가 주재한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낭독된 일종의 신앙 고백서이며 그 후로 루터파의 경전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종파들은 성경지상주의에 따라 기존의 7성례중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였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성찬의 해석을 둘러싸고 심한 알력을 빚었으며 양자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1529년의 마르부르크 담화(Marburg Colloquy)가 결렬되면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줄곧 대립국면을 유지하였다.

32) “Der Ordinanden Examen, wie es in der Kirchen zu Wittemberg gebraucht wird,” CR, 23, p. xxxviii.

33) Karant-Nunn, *op. cit.*, p. 59.

34)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op. cit.*, pp. 155-156.

말한다면, 중세말 독일의 성직자들 가운데 대학에서 수학한 자들의 비율은 40%를 하회한다.<sup>35)</sup> 그러나 서품심사가 정착되고 대학개혁이 그 기틀을 확고히 다진 16세기 중반 이후 루터파의 상황은 이와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 1550년에서 16세기 말까지 뷔르템베르크에서 봉직한 루터파 성직자들 중 75%는 튀빙겐 대학을 졸업하였다.<sup>36)</sup>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수의 타 대학 출신자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를 고려한다면 16세기 후반 뷔르템베르크의 루터파 성직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대졸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590년 팔츠의 루터파 성직자들은 86%가 대학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619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94%로 증가하였다.<sup>37)</sup> 더욱이 16세기 후반 23년간 제국자치도시인 슈트라스부르크(Strasburg)의 지역 교구에 임명된 목회자 132명 중 97명(73.5%)은 석사학위를 소지하였다. 이상의 통계자료는<sup>38)</sup> 대학교육 이수가 실질적으로 서품의 필수조건이었음을 확고부동하게 증명한다. 한 마디로 엄격한 서품심사는 루터파의 성직자들을 명실상부한 지적 엘리트 계급으로 격상시킨 하나의 패거였다.

루터파가 채택한 성직자 교육정책의 또 다른 요체는 바로 교구시찰이었다. 앞서 거론한 대로 교구시찰은 그것이 처음 실시된 1527년 당시 지역 교구의 문제를 파악한다는 국한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한시적인 업무였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 넘는 충격적 결과는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교구시찰은 정례적 행사로 변모하였다. 이듬해인 1528년 「교구시찰관들을 위한 지침서」가 작성된 것도 차후의 교구시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 서문에서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나 비통스럽게 혼란에 빠져 있고 찢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교구시찰과 시찰관의 직위를 재차 제정하는 것

35) James Overfield, “University Studies and the Clergy in Pre-Reformation Germany,” *Rebirth, Reform, and Resilience: The Universities in Transition, 1300-1700*, ed. by James Kittelson and Pamela Transue (Columbus, Ohio: Ohio State Univ. Press, 1984), pp. 273-274, 특히 note 19.

36) Martin Brecht, “Herkunft und Ausbildung der protestantischen Geistlichen des Herzogtums Württemberg im 16. Jahrhundert,”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80 (1969), p. 170.

37) Bernard Vogler, *Le Clergé protestant rhénan au siècle de la réforme (1555-1619)* (Paris, 1976), p. 76.

38) James Kittelson, “Luther the Educational Reformer,” *Luther and Learning*, ed. by Marilyn J. Harran (Selingsgrove, 1985), p. 105.

이 절실히 필요하다”<sup>39)</sup>며 그 존속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단기간에 종식될 수도 있었던 교구시찰은 루터파 지도부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결국 17세기 초반까지 전 루터파 지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교구시찰은 이제 단순히 교구의 실태를 진단하는 차원을 넘어 드러난 오류를 지적하고 현장에서 처방까지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단계로 발돋움하였다. 교회운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한다는 취지는 시찰관들의 이목을 성직자들에게 집중시켰다. 요컨대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과 서품심사가 미래의 성직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교구시찰은 이미 서품된 자들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시찰관들은 교구민들의 교리이해 정도가 흠족하지 못할 경우 담당 목회자의 능력과 목회방침을 소상히 조사한 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추궁하였고 또한 훈계와 처벌을 통해서 그들이 각성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켰다. 문제된 부분은 보고서에 기록되어 차후의 교구시찰에서 재차 점검되기 때문에 해당 목회자들은 지적사항의 보완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자질의 한계가 뚜렷하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는 파면되었다.<sup>40)</sup> 목회자들은 적어도 서품 당시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했다. 1558년 비텐베르크 서품심사 규정은 이를 예증한다. 즉 서품 후보자들이 답변해야 할 “이 모든 사항들은 교구시찰에서 목회자들이 반복해야 한다”<sup>41)</sup>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구시찰은 대학 교과과정의 개혁과 엄격한 서품심사가 추구한 바를 이미 교회개혁의 일선에 나선 교구 목회자들에게 수시로 재확인시키는 루터파 성직자 교육의 결정판이었다. 1529년 1월 9일 교구시찰의 제도화를 운허한 선제후 프리드리히(Johannes Friedrich)<sup>42)</sup>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루터는 마치 갓 탄생한 교구시찰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하였다. “교구시찰은 선제후 각하께서 명령하신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sup>43)</sup> 그것이 성직자 교육을 위한 뛰어난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

39) LW, 40, p. 287.

40) Gerald Strauss, *Luther's House of Learning: Indoctrination of the Young in the German Reformation* (Baltimore, 1978), pp. 249-261은 당시 교구시찰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41) CR, 23, p. xl.

42) 요하네스 프리드리히는 1525년 사망한 그의 형 현명공 프리드리히의 뒤를 이어 선제후가 되었고 1532년 까지 에른스트 작센을 통치하였다.

43) WA Br, 5, p. 3, no. 1371.

루터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다.

## V. 맺음말

1520년대 중반 급진화된 교회 개혁운동이 가져 온 사회적 혼란을 목격한 ‘휴머니스트의 왕자’ 에라스무스는 “루터교가 지배하는 곳에서 학문은 사라진다”<sup>44)</sup>고 토로하였다. 기실 신비적 성령주의자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일종의 몽매주의(蒙昧主義, *obscurantism*)을 지향하였고, 치열한 종파적 투쟁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농민전쟁에 동반된 파괴와 무질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수를 격감시켰다. 견잡을 수 없는 개혁의 불길에서 피어난 연기속에 1520년대의 학문과 교육이 질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청산에 여념이 없었던 초기 개혁운동이 1530년을 전후하여 미래건설의 방향으로 선회한 후 루터파 종교개혁의 전개양상은 에라스무스의 판단이 결코 타당하지 않았음을 예증하였다. 그가 그토록 총애한 인문학이 금자탑을 쌓은 곳은 바로 ‘루터교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또한 성직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풍자하고 질책한 그의 수많은 작품들의 의도에 가장 확실히 부응한 것은 다름 아닌 루터파의 교육정책이었다. 루터파 성직자들의 대다수는 새로이 각광받기 시작한 인문학이 교수되고 현실목회에 별다른 효용성이 없었던 스콜라 신학이 배제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다. 그들의 교육은 상아탑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한 서품심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성적에 입문한 후 정기적으로 찾아 오는 교구시찰은 그들로 하여금 자의든 타의든 자기발전을 부단히 도모케 하였다. 한 마디로 루터파의 성직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상당한 교육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성직자 교육의 개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뿌리 깊은 정착은 불가능했거나 적어도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44) *Opus epistolarum Des. Erasmi Roterodami*, ed. by P. S. Allen, H. M. Allen, and H. W. Garrod (Oxford, 1906-1958), 3, p. 538: "Ubi regnat Lutheranismus, ibi interitus litterarum."